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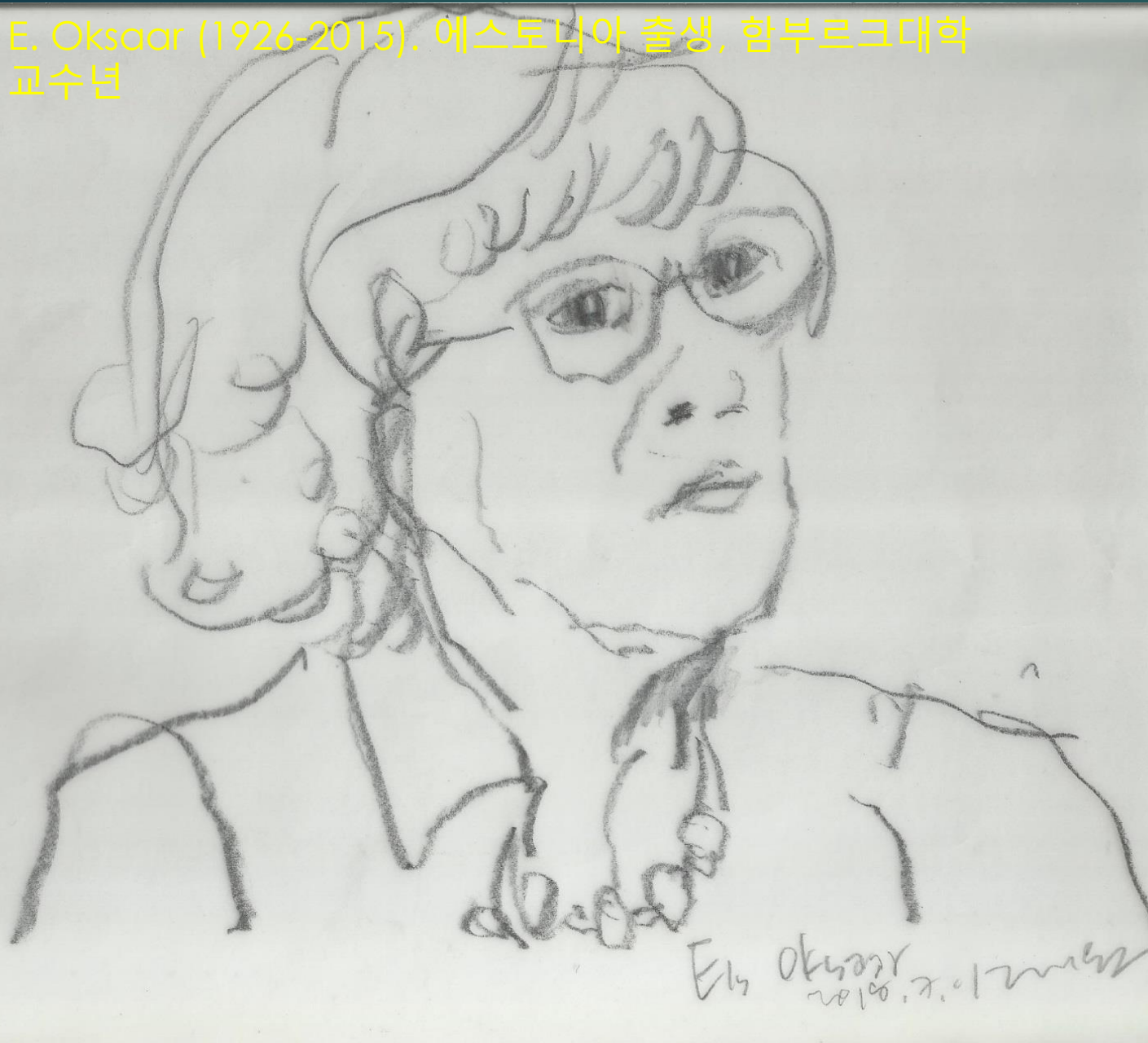
11.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연구

- E. Oksaar의 『문화소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용
(이재원 2008, *소통과 인문학* 7)

- 
- ▶ 결실 있는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언어교육과 더불어 문화교육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해당국가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켰기 때문에 외국어를 오랫동안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강조는 의사소통 중심 또는 기능적 외국어교육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verbal) 요소 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신체 동작 같은 비언어적(nonverbal) 요소, 말의 고저나 강약 그리고 속도 같은 부차언어적(parasprachlich) 요소 그리고 존대법과 같은 언어외적(extraverbal) 여러 요소가 중요함에 틀림없다.


- ▶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시에 문화소와 행동소 (비언어적 요소+언어외적 요소+언어적 요소+부차언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E. Oksaar의 '문화소이론'은 외국어 교육의 기본 이론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녀는 '문화소이론'에서 문화마다 차이가 나는 인사법이나 감사법 그리고 침묵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E. Oksaar의 '문화소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변형되고 개선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다시 말해서 '문화간 의사소통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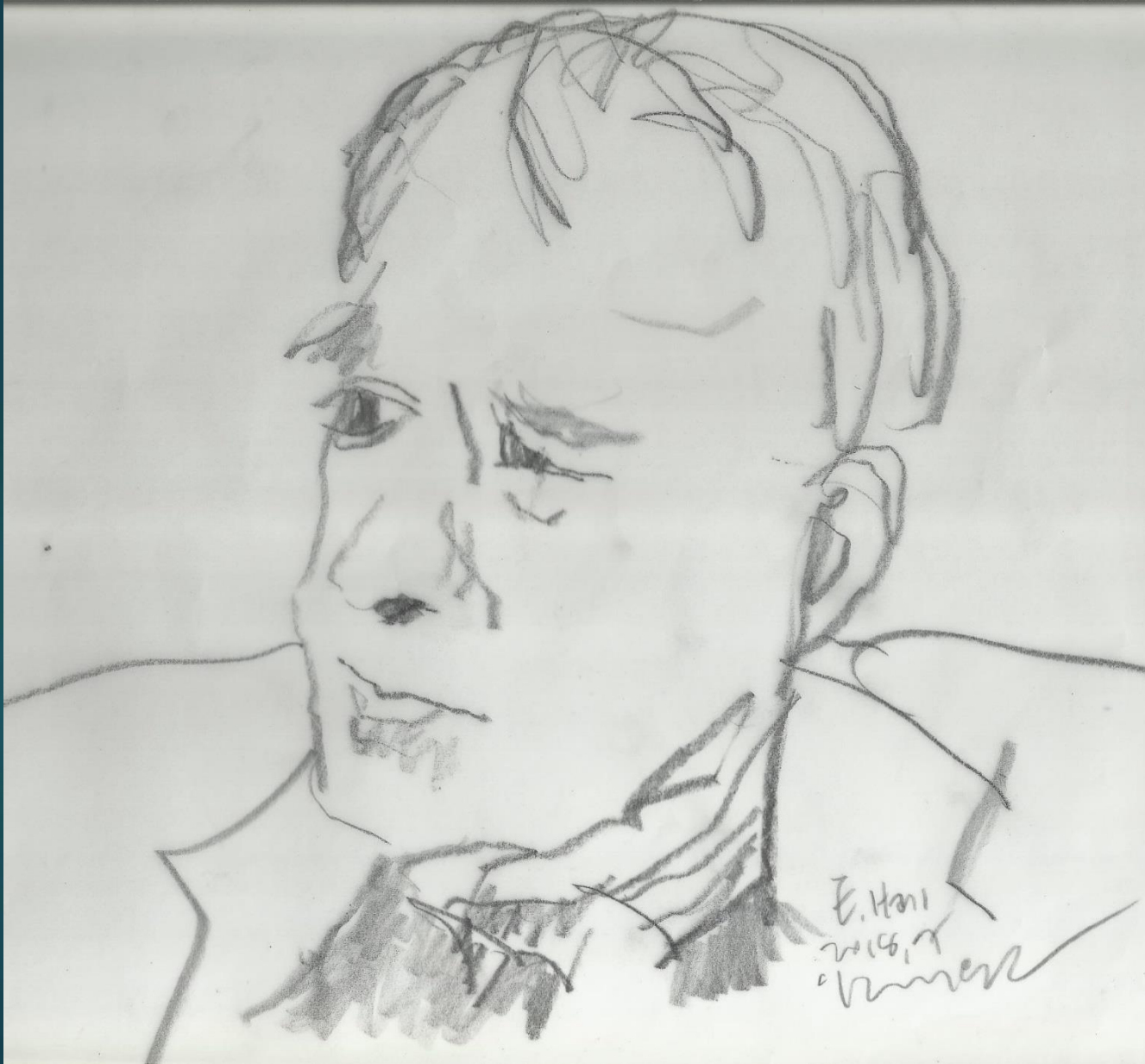
E. Oksaar (1926-2015). 에스토니아 출생, 함부르크대학
교수님



의사소통과 문화의 관련성

- ▶ - 세상에는 서로 다르고 서로 구별되는 문화들이 있다.
- ▶ - 문화와 의사소통은 연관관계 속에 있다.
- ▶ - 의사소통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다.
- ▶ - 문화적인 것이 의사소통에 반영되어 있다.
- ▶ - 문화가담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공동의 문화가담은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상이한 문화가담은 소통을 어렵게 한다. (V. Hinnenkamp, 권오현 1996: 6에서 재인용).

- 
- ▶ 문화학의 전도사임을 자청하는 E. Hall에게 있어서 문화는 『침묵의 언어(The Silent Language)』이며,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이다.
 - ▶ 이질문화간의 의사소통에 기여하기 위해서 E. Oksaar는 1976년, 1979년에 두 편의 논문과 1988년 『문화소이론』이라는 제목을 가진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 문화소이론의 골격은, 우리들이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핵심이 언어적 단위 뿐 만이 아니라, 부차언어적, 비언어적, 언어외적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 대화에서 언어적인 정보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E. Okssar는 다음과 같은 예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 ▶ A: 책이 어디 있지? (Wo ist das Buch?)

- ▶ B: 저기 (Da!)

- ▶ 부수적인 비언어적 지시정보 없이는 직시어 (deiktisches Wort)가 포함된 위의 예문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 지시 대명사 같은) 직시어에는 일반적으로 눈 동작, 머리 동작 또는 손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우리들은 의사 소통 시에 언어와 더불어 사회적 규범, 행동양식, 문화적 관습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14살짜리 아들과 어머니와의 대화이다.


▶ 아들: 내 청바지들이 어디 있지? (Wo sind meine Jeans?)

▶ 엄마: 오늘은 일요일이다. (Heute ist Sonntag.)

▶ 아들: 알았어. (Okey.)

▶ 위의 예에서 문화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청바지'와 '일요일'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없다. 문화개념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아들은 "도대체 오늘이 어떤 날이라서 그래?"라고 엄마의 대답에 다시금 되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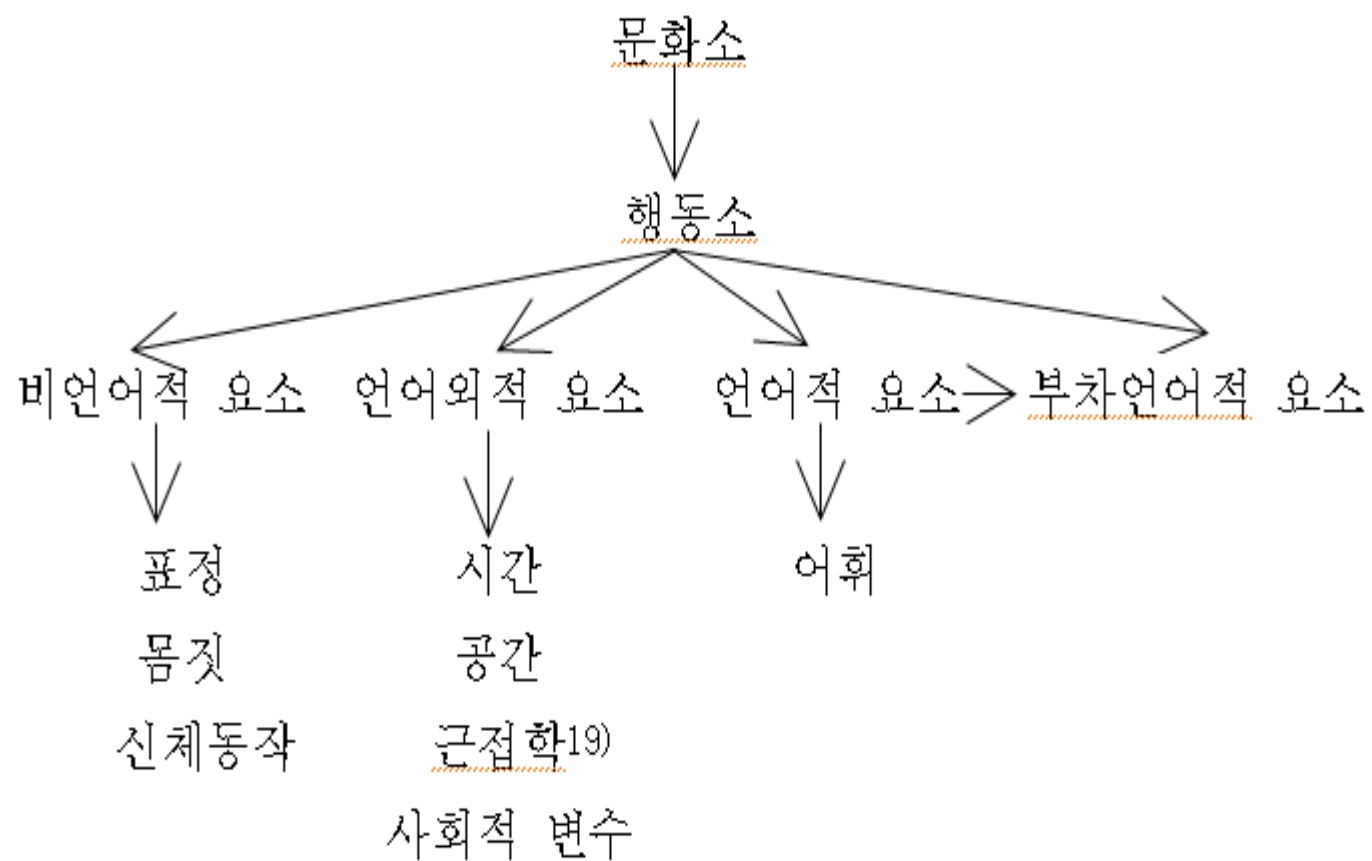
- ▶ “활용 독일어” 강의를 들었던 필자의 학생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실수’ 또한 외국어 학습자에게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다.
- ▶ (지하철 안에서)
- ▶ 학생: 안녕하세요, 교수님! (Guten Tag, Professor!)
- ▶ 교수: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시더라? (Guten Tag, Herr?)
- ▶ 학생: 예, 이철수라고 합니다. (Mein Name ist Chulsu Lee.)
- ▶ 교수: 안녕하세요. 이군. (Guten Tag, Herr Lee).
- ▶ 학생: 어디 가세요? (Wohin fahren Sie?)
- ▶ 교수: ...



▶ 논의 전개에 앞서, E. Oksaar에 있어서 의사소통 행위의 중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언급된다.

- ▶ 1. 파트너/청중
- ▶ 2. 주제/주제들
- ▶ 3. 언어적 요소
- ▶ 4. 부차언어적 요소
- ▶ 5. 비언어적(동적) 요소
- ▶ 6. 언어외적 요소
- ▶ 7. 모든 감정적 행동자질

문화소 (E. Okssar 1988: 28)



1) 비언어적 단위: 표정, 몸짓, 그 밖의 신체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악수, 관자놀이에 집게 손가락대기, 왼손사용, 한손으로 물건 건넌, 어린이 만지기, 손짓신호, 손뼉, 발구르기, 손으로 책상치기, 꼬덕임, 눈과 입의 표정, 시선방향, 눈깜박임, 눈짓, 미소, 웃음, 상대방에게 손대기 ...

2) 부차언어적 단위: 음의 고저, 억양, 음질, 말투 ...

3) 언어외적 단위:

시간성: 행위의 시점(화행의 시점), 시간폭(용건을 시작하는 시간폭), 시간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개인의 시간관과 분배, 시간의 체험, 시간체계(정확한 시간, 부정확한 시간: 이것을 구분하는 어떤 사람이 공식적 시간을 취하는데, 다른 이가 비공식적 시간을 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공간성: 정보전달의 장소.

근접학: 공간에서의 태도(문화특유의 행동규범 존재함, 의사소통시의 간격), 독일인의 사적 공간 중시 경향 (“이 자리 비었나요?”); 적절한 신호 없이 사적 공간에 침입 불가능

사회변수: 연령, 성, 역할, 직업, 신분,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문화소 "인사"

언어적 행동소

시간	만남	격식	Guten Morgen (아침인사)	안녕하세요, <u>오랫만입니다</u>
			Guten Tag (점심인사)	처음 <u>뵙겠습니다</u>
			Guten Abend (저녁인사)	그 동안 <u>별고 없으셨습니까</u>
		비격식	Morgen (아침인사)	안녕! (만날 때 헤어질 때
			Tag (점심인사)	모두 사용. 그러나 <u>헤어질때는</u>
			Abend (저녁인사)	비언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Hi	경우가 많음)
			Hallo (시간대 상관없음)	잘 <u>있었니</u>
			Grüß dich (Hallo 보다 더 친밀감을 줌 ²⁶⁾)	
헤어짐	격식		Auf Wiedersehen	안녕히 <u>가세요</u>
			Gute Nacht (취침인사)	안녕히 <u>계세요</u>
				<u>수고하세요</u>
				<u>가보겠습니다</u>
				<u>건강하세요</u>
				<u>오래사세요</u>
				잘 <u>지내세요</u>
				안녕히 <u>주무세요.</u>
		비격식	Tschüss	안녕
			Ciao(이탈리아산 용어로 이탈리아	<u>잘자</u>
			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에 다 사용)	
		지역어	Grüß Gott (남독에서 사용)	

부차언어적 말투
억양
강세

비언어적 행동소

악수: 사회적 접촉에서 처음 만났거나
아주 절친하지 않는 사이.
악수할 때 손을 너무나 느슨하게
잡으면 안됨
큰절
작은절 (명절 때)
허리굽히기
목례
미소
악수+절도함

이성 간 또는 동성간에도 악수를 함 여자끼리는 악수하는 경우 드물
공식석상에서 입맞춤이나 껴 앉는 인사함 (남성끼리는 하지 않음)
인사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해야 함²⁷⁾

한국에서는 시선의 방향이
상대방의 정면을 향하면 예의에
어긋남. 15도 정도 아래로 시선 고정
오랜만에 찾아 뵈는 스승이나 부모님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머리를
굽적거리면서 미소를 짓곤 하는데,
이는 자신의 실수를 모면하려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독일인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무관심이나 무례함으로 해석됨

언어외적 행동소

사회적 변수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에게(나이)

남자가 여자에게(성)

신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말을 건넨.(직업)

인사할 때 병행되는 비언어적 행동소인

악수는 이와는 반대 방향을 취함

존대법

공간적 변수 병원대기실 같은 곳에서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에게 인사함

한국도 동일

기숙사 복도에서 안면이 없는 사람끼리도 인사함

그렇지 않음

산책하다가 낯선 사람과 오솔길에서 마주칠 경우 인사함

그렇지 않음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인사함

그렇지 않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

미소를 띄면서 목례하면서 지나감

시간적 변수 한번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난 후, 불일이 있어

다시 돌아오더라도 반복해서 인사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인사함²⁸⁾

- ▶ 언어학의 새 지평을 열었던 Chomsky류의 “이상적 화자”개념은 심하면 언어를 인간과 격리된 추상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경향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러나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 이제는 진부함 마저 불러일으키는 - 오래된 언어의 정의를 떠올리면, 이러한 방법론적 결함은 E. Oksaar의 말대로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언어적이고 촘스키의 단일언어적인 화자와 청자는 결코 전형적인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제 언어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최근에 등장하는 상호행위능력 (interaktionelle Kompetenz)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언어능력 외에 상호행위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 이러한 문화소 개념이 한 언어공동체의 각기 다른 개인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디오텍트(개인어), 조씨오텍트(사회어), 디알렉트(방언)이다”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문화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다는 G. Hofstede의 주장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몇 겹의 정신 프로그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국가수준, 즉 자기가 속한 나라(이주자에게는 몇 개의 나라)’, ‘지역, 인종, 종교 또는 언어집단 수준(대부분의 나라는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 인종, 종교 또는 언어집단으로 구성됨)’, ‘성별수준(한 개인이 여자로 또는 남자로 태어났는지에 따름)’, ‘세대수준(조부모, 부모, 자식의 세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에 따름)’, ‘사회계층 수준(교육기회나 직업에 따른 수준)’, ‘조직 또는 기업수준(직장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장 조직에 의해 특이하게 사회화됨에 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정신 프로그램 사이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수준이나 언어집단 수준이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선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문화간의 비교가 중요할 수 있다.

